

치명적인 실수(렘 강해 설교 36)

성경말씀: 렘42:1-22, 43:1-13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남은 자', 바빌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초토화되었으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주신다. 대언자 예레미야(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함), 선한 총독 그달리야(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나 통치력과 판단력이 결핍됨. 일찍 죽어 백성이 흩어지게 함), 쓴 뿌리 이스마엘(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지도자를 죽임), 내부와 외부의 적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의 은혜

이 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통해 남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다(41:11). 그런데 충신으로 시작한 요하난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땅 이집트로 백성을 끌고 갔다.(41:17)

표면적인 이유: 이스마엘이 총독 그달리야를 죽이면서 갈대아 사람들의 군사들을 죽임(41:3). 보복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시덤불(마13:22),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함. 어쩌면 그도 자기의 야욕이 있었음.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온다. 이때 우리 마음이 드러난다. 결정을 잘해야 한다. <치명적인 실수>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된 기도(42장)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 그런데 혹시 우리는 유다의 남은 자들처럼 기도하지는 않는가?

이들은 이미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정했다(41:17).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불안하므로 하나님의 승인을 구함.

그러기 위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나옴(42:2). 이미 기도의 공식이 있지는 않은가?

말은 잘한다(2-3): 우리가 많았지만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5-6),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되리이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가? 우선

우리는 어떤가? 겉으로는 참으로 경건하게 기도하지만 속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바른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언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고 열흘 후에 말씀이 임하였다.

- (1) 하나님의 약속(10-12),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예레미야가 즐기치게 외쳤던 말씀 "바빌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처한 악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한다."
- (2) 하나님의 경고(13-18),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이집트로 가면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칼과 기근과 역병이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내 분노가 예루살렘에 떨어진 것 같이 이집트의 너희에게 떨어진다."
- (3) 너희 마음이 문제다(20), 너희가 아무리 경건한 체 해도 이미 너희가 마음속으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렘17:9-10, (4) 최종 결과(22), 이집트에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역병에 다 죽을 것이다.

무엇을 배우는가?

- (1) 이미 자기의 것을 정해 놓고 목사나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려 하지 말라. 기도원, 릭 워렌 20개 역본
- (2)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저버리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직장, 배우자, 교회, 일의 순서)
- (3) 누가 대신 기도해 달라고 하지 말라(2절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는 '내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것'
- (4) 하나님이 열흘 동안 회개의 시간을 또 주셨다. 잘못을 알아차리고 이때에 돌이켜야 한다.
- (5) 이처럼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서도,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는 불신자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된 태도(43장)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다시 한번 이들의 잘못을 보여 주며 회개를 촉구하지만 이들은 대언자를 비난함.

- (1) 내가 거짓말 한다(43:2). 목사나 형제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성경,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별, 환난 전 휴거, 목사와 집사의 자격(딤후3)
- (2) 네 조수 바룩이 너를 부추기는데 네가 거기에 빠져 놀아난다(43:3).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

바룩은 그의 조수, 조수의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나님 무시 지난 몇 주 동안의 어려움: ‘거짓말 대왕, 공작 정치, 교회의 대형화, 사유화, 사모와 자매들 좌지우지’ 그분과 그분의 가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눅6:26

목사의 어려움, 목사는 여러 사람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판단/처리한다. 사람을 쓰는 일이 가장 힘들다.

전도사, 교육목사, 부목사를 데려오는 일, 가게 하는 일, 집사, 리더, 교사를 선정하는 일, 그만 두게 하는 일, 어떤 경우에는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한다(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가 불의하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아도 늘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일일이 공개하면 당사자가 어려우므로 그리하지 않고 오해를 덮어쓰더라도 평안을 추구한다. 그런데 일이 터지면 목사를 원망한다. “누구의 말을 들어서 그렇다고.” 아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맞으면 공개 사과하겠다. 그게 아니고 ‘카더라’ 통신이면 그런 것으로 목사를 흔들지 말라. 여러 사람이 불행해진다. “목사가 어떤 형제, 자매, 집사의 말을 듣고 잘못 판단한다.” 목사는 가까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너무나 당연한 일, 그러나 도리와 사리에 맞지 않으면 안 듣는다.

집사, 지역, 섬김, 목요 자매, 금요 모임, 교사들, 찬양대 모임,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판단하여 처리함. 목사는 대언자 예레미야처럼 선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려 한다.

내 마음에 맞으면 OK,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목사나 성경을 대적하면 안 된다.

(3) 이렇게 사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자 ‘치명적인 실수’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7).

이집트로 가지 말라(611회)

아브라함의 이집트 행(창12:10-20), 기근,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죽게 될까 겁이 남(12:2-3절 무시),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 파라오가 사라를 취하려 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음
출애굽기 1장,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말리는 곳, 속박의 집, 쇠 용광로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하나님의 은혜, 광야 생활 하면서 늘 이집트에 대한 동경이 남아 있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만나를 먹는데 이제는 이게 지겹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민11:5)

왕이 되려는 자는 결코 이집트로 가지 말라. 백성을 데리고 가지 말라(신17:15-15).

- (1) 성경, 부패한 성경의 출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천주교 소수 본문, 비유(영적) 해석
- (2) 성경적 교회: 설교, 음악, (3) 취미, (4) 습관, (5) 열심, (6) 모임, (7) 현금